

보도해명자료 (‘19. 1. 21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수립시 원자력을 이용한 수소
생산을 제안받은 바 없음 (서울경제 1.21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)

- 수소경제 추진위원회 생산분과를 통해 확인한 바,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수립 과정에서 원자력 기술을 이용한 수소 생산 방안을 제안받은 바 없음
- 1월 21일 서울경제 <탈원전에...수소경제 핵심기술 버렸다>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.

1. 기사내용

- ☐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수립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들이 원자력 기술을 이용한 대량 수소생산 방식인 ‘초고온가스로’ 도입을 제안 하였으나, 정부가 로드맵에서 제외하였음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- ☐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수립 과정에서 ‘수소경제 추진위원회의 생산 분과’는 원자력 기술을 이용한 초고온가스로 도입을 제안받은 바 없음
- ☐ ‘차세대 고온가스로’를 활용한 수소생산은 아직 미완성인 기술로서, 전세계적으로도 아직 실증단계 수준임
 - 생산분과에서는 원자력 이용 수소생산(초고온가스로)에 대한 제안이나 논의가 없었으며, 특정 기술을 배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
- ☐ 향후, 다양한 수소생산기술과 방법에 대하여 경제성, 안전성, 친환경성 등을 고려하여 검토할 계획임

※ 문의: 에너지신산업과 신성필 과장/박성수 사무관 (044-203-5398)
원전산업정책과 정종영 과장/홍충완 사무관 (044-203-5319)